

종합

# 구청직원 월급 줄 돈 말라간다

## 동구 100억·서구 109억 등 광주시에 지원 요청

### 市 교부예산 200억 불과 ... 연말 체불사태 올수도

광주지역 5개 자치구가 인건비와 사회복지비 등 필수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재원이 부족해 '재정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이들 자치구는 광주 시로부터 지원조정교부금을 지원받을 계획이지만 광주시의 지급예정금액과 자치구의 요구금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인건비 미지급이나 사회복지사업 중지 등의 개연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23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다음달 중으로 5개 자치구 모두 광주시의 지원조정교부금 지원을 전제로 추경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추

경예산 규모는 동구 176억원, 서구 161억원, 남구 240억원, 북구 180억원, 광산구 214억원 등으로 모두 971억원이다. 이들 자치구는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 사업비 및 경상비를 절감해 자구재원을 마련했으나, 나머지는 광주 시로부터 지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각 자치구가 광주시에 요청하고 있는 예산 규모는 동구 100억원, 서구 109억원, 남구 160억원, 북구 131억원, 광산구 100억원 등 모두 6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광주시는 5개 자치구에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인 200억원만을 지원할 예정이어서 광주시의 방침에 변화

가 없을 경우 자치구 요청금액에 비해 4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자치구의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광주시로서도 예산이 부족한 형편이어서 어쩔 도리가 없다"며 "나머지는 자치구에서 사업예산이나 경상비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5개 자치구는 광주시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할 경우 하반기 재정운용이 파탄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추가 예산 절감이나 재원 발굴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동구 관계자는 "강운태 광주시장이 자치구를 방문하면 최우선 순위로 예산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 시도 '친서민 정책' 시동

## 노후 아파트 오·폐수 관리 정비 최우선

### 장애인에 휠체어 수리비 20만원씩 지원

광주시가 영세민과 장애인, 독거노인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 경제가 호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들의 생활기반이 악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관련기사 7면〉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철거대상인 E등급 아파트에 살면서도 가정 형편으로 인해 이사하지 못하고 있는 영세 가정에 대해 공공 영구임대아파트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영세민들이 월세로 기거하고 있는 노후 아파트에 대해서도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수구 등 오·폐수 관리를 일제 조사해 최우선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강운태 시장은 이날 "보수가 불가능한 철거대상 시설물에 시민이 거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반드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영세 노후아파트단지 시설을 일제조사해 우선적으로 광주시에서 관리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광주시는 또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장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수리비를 1인당 20만원씩(일반인 10만원) 지원하고 배터리를 무료충전소도 운영하기로 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60세 이상 노인 3280명에 대해서는 무료 식사를 제공하기로 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 4158명까지 급식 노인 수를 늘려나가기로 하는 등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화재 이재민에 대해서는 생필품과 식량을 지원하는 등 행정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민간부문에 맡기기보다는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광주시의 각종 정책에 이같은 기조를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U대회 선수촌 입지는 주민동의 등 충족돼야"  
강 시장

강운태 광주시장은 23일 논란이 되고 있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이하 광주U대회) 선수촌 지정과 관련 "화정중공아파트와 영주중공아파트 2곳을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주민동의와 견실한 시공자 선정, 소병의식 등 3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선수촌 문제는 광주U대회 성공 개최의 필수요소 가운데 하나로, 시민의 행복이라는 시정목표에 부합돼야 한다"며 "도시개발 방법과 관련해 가급적 도심재생 사업과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차질 없는 선수촌 조성을 위해 무엇보다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견실한 시공자가 선정돼야만 선수촌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광주시와 도시공사, 서구청 등 관계기관 공직자들도 적극적인 소명의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화순군 전국 첫 고교 무상교육

### 수업료 전액 지원

화순군이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화순군은 올해 2학기부터 화순고·화순실고·능주고·이양고 등 관내 4개 고교생에게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이날 화순군의회에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고교생에게 수업료를 지원해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한 것은 화순군이 처음이며, 경남 함양군이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화순군의 고교 무상교육은 전액 군수의 공약에 따른 것으로, 이에 필요한 2학기 수업료 예산은 2억5000만원이며 내년부터는 5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화순지역 4개 고교 재학생은 2218명으로, 농어민자녀와 저소득 계층 자녀로 국가로부터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는 1525명을 제외한 693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는다.

전 군수는 "지난 민선4기부터 교육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인재를 육성하며, 경남 함양군이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제도를 통해 인구유출을 막고 명실상부한 교육특구로 인정받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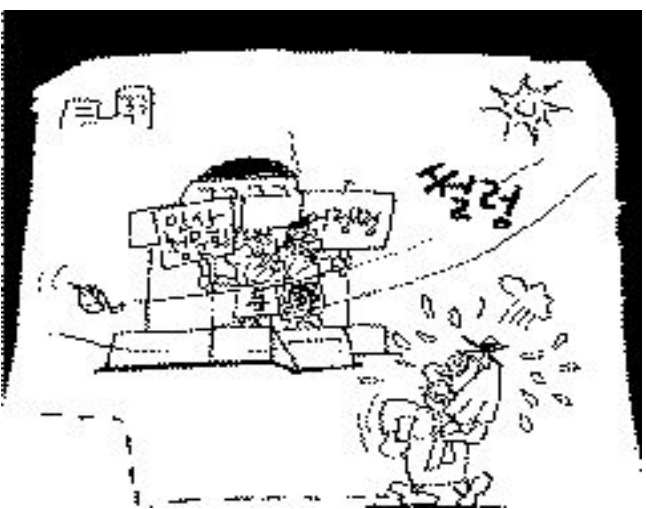
/중부취재본부=정순수기자 unsu@



**첨단산업 교류 논의** 강운태 광주시장이 23일 광주시를 방문한 튀니지 이스라엘리(Tuvia Israelii) 주한 이스라엘대사와 만나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다각적인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빛의 만평

- 김중두



폭염에 댁들은 시원해서 좋겠수다

### 1면 '장수 광주·전남'서 계속

지역별로는 구례군의 생존백세장수지표가 1만명당 14.31명으로 전남에서 가장 높았고 전국 260개 지역에서도 충남 계룡시(22.86명)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함평군은 14.18명으로 세번째였다.

이외 장성군(10.69명), 순천(10.54명), 광양(9.88명), 여수(7.76명), 담양(7.39명), 강진(7.13명), 신안(6.91명), 영광(6.77명), 나주(4.67명), 보성(4.27명), 고흥(4.11명), 곡성(3.63명), 완도(3.58명), 진도(3.42명), 해남(3.41명), 영암(2.47명), 무안(2.55명), 화순(2.32명) 등의 순이었다. 목포는 0.70명으로 가장 낮았다.

광주에서는 북구가 65세 이상 노인 중 100세까지의 생존 비율이 인구 1만명당 6.51명으로 가장 높았고 서구

(4.95명), 광산구(4.58명), 남구(4.46명) 등의 순이었다.

장흥과 광주 동구의 경우 지난 2005년 조사 당시 100세 이상 노인 인구가 없어 통계에서 제외됐다는 게 김 교수 설명이다.

김 교수는 특히 "100세인 생존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중 급중과 급원을 실천하는 비율이 높았고 100세인 생존 비율이 높은 지역은 당근, 토란, 생강, 감자, 고구마, 무, 참마, 연뿌리, 우엉 등의 근채류(뿌리채소류) 및 마늘의 생산과 소비가 많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보건의료서비스의 정도(영양력 83.9%), 아황산가스(SO2)와 미세먼지의 양(영양력 79.1%)등도 100세인의 생존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 광주 양림동 역사마을 21m 전망대 건립키로

광주시가 역사문화마을로 조성중인 남구 양림동 순교사 기념공원 내에 상징 전망대가 건립된다. 전망대의 높이는 21m로, 모두 2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23일 "광주의 대표적 근현대문화유산인 양림동을 상징할 수 있도록 전망대를 건립할 계획"이라며 "설계공모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

### 本社 人事

▲朴濟信: 중부취재본부 영암주재  
▲安洙得: 중부취재본부 광양주재  
(8월 24일자)

### 社告

## 제50회 무료 시민 건강강좌

27일 오후 2시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박경화 전남대 교수 '학생제 바로알기'

광주일보사와 전남대병원은 오는 27일 제50회 테마가 있는 시민 건강강좌를 개최합니다.

시민강좌는 전남대병원 전문 의료진이 직접 나서 강연하고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강좌는 '학생제 바로 알기'를 주제로 열립니다.

강사는 전남대병원 감염내과 박경화 교수로, 이번 강좌에서는 학생제와 학생제 내성, 학생제 내성이 왜 문제가 되는지와 학생제 내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소개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 제 : '학생제 바로알기'
- 강 사 : 박경화 감염내과 교수



-대한감염학회  
-화학요법학회  
-면역저하자 학회  
-에이즈 학회  
-요로감염 등 전문 치료

- 일 시 : 8월 27일(금) 오후 2시
- 장 소 : 광주시 동구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 문 의 : 전남대병원 홍보실(062)220-5092  
교육연구실(062)220-6082

光州日報社·전남대병원

###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신뢰와 정성을 바탕으로 최고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평생교육 전문기관입니다.

- 1. 교육과정: 대학원 석·박사 과정, 대학원 석·박사 과정, 대학원 석·박사 과정
- 2. 교육장소: 대학원 석·박사 과정, 대학원 석·박사 과정, 대학원 석·박사 과정
- 3. 교육방법: 대학원 석·박사 과정, 대학원 석·박사 과정, 대학원 석·박사 과정
- 4. 교육비용: 대학원 석·박사 과정, 대학원 석·박사 과정, 대학원 석·박사 과정
- 5. 교육문의: 대학원 석·박사 과정, 대학원 석·박사 과정, 대학원 석·박사 과정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Tel: 062-670-2167, 2168  
E-mail: life@kw.ac.kr

###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1. 교육과정: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

2. 교육장소: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

3. 교육방법: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

4. 교육비용: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

5. 교육문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  
www.gpu.ac.kr

### 최고경영지도자과정

특별한 신념과 자부심 고취관념을 깨뜨리는 명품 아카데미

비전 VISION

1. 교육대상: 최고경영자, 부장, 과장, 팀장, 대리, 사무원 등

2. 교육내용: 리더십, 전략, 경영, 조직, 인사, 마케팅, 재무, 법률 등

3. 교육장소: 광주,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등

4. 교육비용: 최고경영자, 부장, 과장, 팀장, 대리, 사무원 등

5. 교육문의: 최고경영자, 부장, 과장, 팀장, 대리, 사무원 등

062-222-2255 / 010-9441-7000